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임시 공동의회 안내(임직 피택 투표)
  - 임직자 피택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 안수집사 후보: 권이남, 류홍덕, 양영욱, 이정기 (4명)
  - \* 권사 후보: 김은혜, 노미숙, 백승숙, 서영숙, 최태신 (5명)
- 가을 성경공부 안내
  - 가을학기 성경공부 모임이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시간: 목요일 아침 10시, 토요일 7시 30분
  - 교재: 기도의 사람(유진소 목사 지음, 두란노 출판사)
- 친교 안내
  - 오늘 친교는 롱아일랜드 구역입니다.
  - 다음 친교는 베아사이드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9/22	섭	최태신	롱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9/29	최홍만	노미숙	베아사이드 구역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이번 주 설교 요약

- 제목: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2~11절  
 기도제목: 1.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2. 죄의 문제를 언제나 심각하게 다룰 수 있게 하소서.  
 3.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 1.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죄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죄함이 너무나도 많이 자주 행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신문을 펼쳐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향한 정죄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이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루머와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정죄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당히 못마땅한 눈으로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음행 중에 잡혔더라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나온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여자를 데리고 나온 자들의 관심은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계획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 2.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돌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돌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저들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만 백성이 손을 댈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찌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할 때,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면 죽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모함해서 정죄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돌로 치려면 그에 따른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은 그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듣고 있던 돌을 놓고 돌아섰다는 것은 그 자리에는 확실한 증인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인을 정죄하는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재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끼여 맞추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 확실한 증인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허점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용서만 해 주시는 분? 작년에 이 본문은 다루면서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서 빠져 있어도 괜찮다. 우리 없어도 세상이 정죄하는 일은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정죄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 주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행사

22일 - 임시 공동의회(임직자 피택을 위한 투표)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오전 9시30분(1부) 오전 11시(2부)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합심기도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최태신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5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6번(이사야 40장)	
찬 송 Hymn	183장	
기 도(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 8장 2~11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요한1서 강해
▲ 찬 송 Hymn	202장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